

문화도시 광주, 이제 문학관이다

<7> 부산 요산 문학관

요산(樂山) 김정환(1908-1996)은 격동의 20세기를 온몸으로 살았던 작가다. 민족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이었으며 불의한 현실에 맞섰던 지사였다. "사람답게 살아가라.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불의에 타협한다든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의 길이 아니다." 그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시대를 초월해 오늘을 사는 모든 이에게 던지는 금언이다. 그의 말에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외양만 사람일 뿐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김·정·환 대쪽같은 문인이 시대에게 던진다



사람답게 살아가라

요산(樂山) 김정환 작가. 그의 삶은 세 층위의 항거와 밀접한 연관을 이룬다. 일제강점기에는 반일 운동을, 해방 후로는 독재에 항거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이후 절망의 농촌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을 썼다. 반일운동, 독재 항거, 현실고발은 그의 삶이 불의한 세대와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준다. 앞서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말은 소설 '산거쪽'의 주인공 황거쪽의 좌우명이다. 소설 속 인물의 좌우명이 작가의 좌우명이 된 셈이다. 한편으로 일제시대와 군부독재시대를 살며 깨어 있는 진보적 지식인으로, 문인으로 선 굵은 활동을 해왔던 작가의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광주에서 부산까지는 그리 짧은 거리는 아니다. 요산의 문학을 알현한다는 기대와 설렘은 오늘의 코로나의 불안도 저만치 밀쳐냈다. 물론 한여름의 탁 트인 바다를 기대하기보다는 방역수칙과 안전이라는 생각을 염두하며 떠난 길이었다.

차창으로 들이치는 햇살은 비늘끝처럼 따갑고 뜨거웠다. 간혹 열어졌던 창밖으로 습한 바람이 불어왔다. 부산에는 항구도시 특유의 분위기가 있지만, 내륙은 어느 도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남도가 고전적인 그런 목향의 분위기라면 부산과 영남은 다소 수채화가 가미된 담채화의 느낌이었다.

요산문학관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있다. 소설 '사하촌'과 '모래톱 이야기'의 작가 김정환의 삶과 작품 세계가 집약된 공간이다. 지난 2006년 11월에 개관한 이곳은 200여 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다양한 책들을 비치한 북카페가 꾸며져 있다. 2층은 김정환 작가의 유품을 비롯해 생전 인터뷰 장면을 담은 영상시설과 3000여 권의 책을 소장한 도서관이 들어서 있다. 특히 3층에는 창작 공간을 모티브로 한 집필실이 마련돼 있으며 지하는 강당과 다목적 홀로 구성돼 있다.

전체적인 규모는 아담하다. 그다지 넓지 않지만 생각을 겸한 정원이 펼쳐져 있어 여백의 분위기를 피워낸다. 방문객들은 정원을 거닐며 요산이 꿈꿨던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잠시나마 가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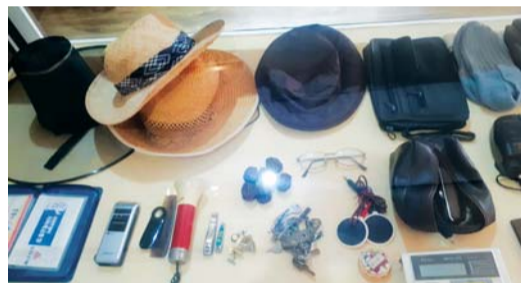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문학관 초입에 아담한 한옥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상했던 대로 생각이다. 문학관 부지로 생각이 편입돼 작가의 문학세계를 좀더 확장된 시각으로 엿볼 수 있다. '樂山齋' 요산이 편안히 기거하는 집이라는 뜻인 듯하다. 누구에게나 생가는 가장 안전하며 맞춤형 공간일 게다. 건물의 규모나 배경이 아닌 정서적인 배경으로서의 분위기가 말이다.

문학관과 생각이 높은 언덕에 자리한 탓에 시야

항일운동·독재 항거·현실고발 격동의 20세기 불의에 맞선 삶

1932년 日서 귀향 농민문학에 뜻진보적 지식인·문인으로 한평생

부산 금정구 남산동 언덕에 아담한 한옥 생가와 문학관



김정환 작가의 유품.

가 트인다. 요산 문학이 이곳을 근거로 움트고 꽃피웠을 게다. 생각 앞에는 작은 대나무가 무리지어 있다. 작지만 웅골찬 시누대는 마치 요산의 정신이 현현된 것처럼 보인다. 요산은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작가는 아니었다. 한마디로 푸른 대나무와 같은 문인이었다. 대쪽처럼 깨끗하고 푸르기가 쪽빛에 비할 데 없어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던 소설가였다. 앞마당에 다른 무엇보다 어울리는 게 바로 대나무이자, 시누대다. 바람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는, 뿌리를 견고히 붙박은 요산의 정신을 본다.



부산에 있는 요산 문학관은 '사하촌'의 작가 김정환의 삶과 문학적 혼이 응결돼 있는 의미있는 공간이다.

역사의식을 1970년대의 소설적 성과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작가는 한때 '동아일보' 동래지국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아픔을 겪는다. 이후 부산중학교 교사, 부산대 교수, 부산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했으며 5·16 때는 교수직을 박탈당했다가 이후 복직되기도 한다. 1974년 진보적 문학가들의 단체인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의고문을 맡았고 1987년에는 민족문학작가회의 초대 의장을 역임한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는 고전적인 명제에 가장 어울리는 작가가 바로 김정환이다. 아울러 김정환은 "작가는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명제와도 부합한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행동하는 작가'로 요약된다.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그는 작품을 넘어 직접 몸으로 그 명제를 실천하고자 몸부림쳤던 우리시대의 작가였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학관 정원에 있는 돌탑.

Advertisement fo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Daejeon Primo Men's and Women's Wigs). It features a red background with white and yellow text. On the left, it lists awards: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and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The main text reads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in large white characters. Below this, it says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and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At the bottom, it provides the phone number '062 673 5858 (모발모발)' and the address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On the right, it notes '매주 화요일 휴무' and '일요일 정상 영업'.